

르완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26천 km ²	GDP	77억 달러 ('13)
인구	1,064만 명 ('13)	1인당 GDP	724 달러 ('13)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wanda franc (Rw fr)
대외정책	다변화 개방정책	환율(달러당)	823.2

- 아프리카 중부 내륙지역에 위치한 르완다는 한반도의 1/10 규모의 국토와 1,06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와 국경을 접함.
- 1994년 후투족의 투치족 대학살 이후 투치족 세력이 기반이 된 르완다애국전선이 정권을 장악하여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으며, 종족 간 화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커피, 차, 주석이 주요 수출품으로 농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에 힘입어 8%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실현하고 있음.
- 2005년 HIPC(고채무저소득국) 완료점에 도달함에 따라 대규모 채무 탕감과 리스케줄링을 거쳤으며 이후 외채 관련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됨. 2013년에는 4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개선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최근 연 7~8%의 경제 성장세 지속

- 2012년 르완다 경제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의 반군 M23를 지원한 혐의로 대외원조의 20%가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좋은 기후에 따른 농업 부문 호황, 운송·정보통신 등 서비스 부문 성장세에 힘입어 8%의 견실한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FDI 유입규모(백만 달러) : 119('09) → 42('10) → 106('11) → 160('12)

- 대외원조는 GDP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르완다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르완다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줄이고 국내 차입을 늘리는 한편 국세행정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원조 삭감 효과를 상쇄시킴.

- 2013년에도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세 지속, 전력공급 개선, 대외수요 개선 등에 힘입어 7.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삭감된 대외원조가 회복될 경우 그 이상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 자리 수의 양호한 소비자물가상승률

- 르완다는 내륙국가로 수입 비용이 높고 통화정책 수단이 미흡해 중앙은행의 정책보다는 대외 경기 및 기후 변화 등 외부요인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침.

- 2013년 6월 중앙은행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7.5%에서 7%로 인하하였으나,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2011년 5.7%, 2012년 6.3% 등 2010년 이후 매년 한 자리 수의 양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식료품 가격 및 유가 안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폭의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르완다는 2013년 기준 1인당 GDP가 724달러에 불과한 빈국으로 세수 기반이 미흡해 국가예산의 40%를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빈곤 퇴치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2% 내외의 소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정부의 2013/14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7%(약 26억 달러) 증가될 예정이며, 부문별로는 빈곤 퇴치 및 삶의 질 개선 37%, 경제개혁 28%, 지방개발 10% 등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음.
- 정부는 예산의 40%를 대외 조달할 계획이나, 대외원조가 삭감됨에 따라 국내 조달을 확대해야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세금징수 관련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광물 개발 로열티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업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킴.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제성장률	6.2	7.2	8.2	8.0	7.5
재정수지 / GDP	0.3	0.4	-2.2	-1.8	-2.8
소비자물가상승률	10.3	2.3	5.7	6.3	5.7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무역비용이 높고 내수시장 발달은 어려운 여건

- 르완다는 4개국과 국경을 접하는 내륙국가로 항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운송비가 높고, 주변국 통과에 따른 세관심사 중복으로 무역 관련 비용이 높은 수준임.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르완다의 전체 순위는 185개국 가운데 52위로 중상위를 기록하였으나, 대외무역 부문은 158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수출 소요기일 29일, 컨테이너 당 수출비용 3,245달러, 수입 소요기일 31일, 컨테이너 당 수입비용 4,990달러로 무역 관련 소요 시간과 비용이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인구가 2013년 기준 1,064만 명에 불과해 내수시장 발달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는 어려운 상황임.

□ 농업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르완다는 커피, 차 등 수출용 상품작물(cash crop) 재배를 중심으로 농업 부문이 GDP의 약 33%, 노동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와 작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특히 커피(2011년 수출액 9,680만 달러, 수출품목 1위)와 차(2011년 수출액 6,390만 달러, 수출품목 3위)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작물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국제 커피 및 차 가격 변동에 민감함.
 - 산업별 GDP 구성(2012년): 서비스업 52.9%, 농업 33.3%, 제조업 13.9%
-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대부분 강수량에 의존한 생계형 소규모 농작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량 증가가 인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식량을 일부 수입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양호한 교육 수준과 인적자원

- 르완다는 영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열이 높아 초등학교 등록률이 98.7%, 어린이의 기대 교육년수가 10.9년에 달하고 문맹률이 30% 미만임. 또 기술학교 진학률이 높아 산업부문 성장에 뒷받침이 되고 있음.

□ 관광지로서 경쟁력 보유

- 르완다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마운틴고릴라의 1/3이 서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최대의 자연림인 Nyungwe 국립공원에서는 300여종의 새와 희귀 동식물 관찰이 가능해 생태관광 수요가 높음. 또 아프리카 최대의 습지인 Akagera 국립공원, 6개의 화산을 아우르는 국립화산공원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르완다는 중부 아프리카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 중 하나로,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입국자의 16%가 아프리카 외 지역 출신이며 지속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정책성과

□ 민간 부문 투자여건 개선

- 르완다 정부는 2000년 '르완다 비전 2020'을 수립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290달러에서 900달러(성장세 및 물가수준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500달러로 목표 수정)로 증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민간부문 성장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개혁 정책을 실시해왔음.
- 세계은행은 2001년부터 '르완다 비전 2020'을 보조하기 위해 르완다에서 '경쟁력 및 기업 발전 프로젝트'와 '르완다 투자환경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상업법 개정, 은행업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 등을 실행하고 투자환경 개혁 정책을 지원하였음.
- 2005년 이후 르완다 정부는 26건의 사업규제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등록, 재산등록 절차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록하면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종합순위도 2008년 150위에서 2013년 52위로 급상승하였음.
- 2004년 사업등록에 필요한 절차는 9단계, 소요기일은 18일이었으나 2012년 절차는 2단계, 소요기일은 3일로 단축되었으며 비용도 1인당 국민소득의 235% 수준에서 4%로 크게 감소하였음.

- 아울러 2008년 부동산 등록세를 폐지하고 거래금액의 6%에 해당하던 양도세를 건당 33달러의 정액세로 개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토지소유권등록사무소를 분권화시키는 등 재산등록 절차를 개선하였음. 이에 따라 2004년 371일에 달했던 재산등록 소요기일이 2012년에는 25일로 단축되었음.

□ 공공부문 기업공개(IPO) 추진

- 르완다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현재의 정부 중심 경제에서 시장 중심 경제로 이동하고자 13개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3~14년 중 1차적으로 르완다상업은행과 르완다항공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음.
- 르완다 자본시장위원회는 가능한 한 2013년 내에 르완다상업은행의 지분 20%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4/15회계연도에 공기업 지분 다양화를 통해 100억 르완다프랑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려는 계획의 일부임.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르완다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자본재와 소비재 수요를 모두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2년에는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재, 소비재의 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인 반면 주요 수입원인 대외원조가 감소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전년(7.4%) 대비 소폭 증가한 8%를 기록하였음.
- 2013년에는 글로벌 경기 안정으로 전반적인 수출 증가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품인 차의 국제가격 하락, 광물 수출국 구분에 대한 엄격한 기준 도입으로 인한 공식 수출액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8.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높은 경제성장률과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관광 등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하여 외채

규모가 2009년 7.6억 달러에서 2012년 12.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4월 4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외채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르완다의 외환보유액은 2009년 7억 달러에서 2011년 11억 달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 대외원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줄이고 국내차입을 늘림에 따라 8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외채 증가세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과 D.S.R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2013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7.3%, D.S.R.은 19.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f
경 상 수 지	-379	-421	-468	-569	-668
경 상 수 지 / GDP	-7.1	-7.5	-7.4	-8.0	-8.5
상 품 수 지	-787	-787	-1,096	-1,359	-1,399
수 출	174	297	469	512	538
수 입	961	1,084	1,565	1,871	1,937
외 환 보 유 액	743	813	1,050	844	844
총 외 채 잔 액	760	842	1,181	1,261	1,338
총외채잔액/GDP	14.5	14.9	18.5	17.7	17.3
D . S . R .	1.8	2.9	4.2	11.7	19.9

자료: IMF, EIU 및 OECD.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1994년 종족 대학살 사태 이후 르완다애국전선(RPF) 집권

- 1994년 4~7월 중 다수종족인 후투족에 의해 소수종족인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 80만 명이 살해되고 200만 명이 국외로 피난하는 대학살이 발생하였음. 이 사태는 우간다에서 난민 생활을 하던 소수의 투치족 반군에 의해 종식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이들이 주축을 이룬 RPF가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음.

□ 카가메 대통령과 RPF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속

- 카가메 대통령은 2000년 4월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2003년 대학살 이후 치러진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10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재선에 성공하였음.
- 카가메 대통령은 1994년 대학살 이후 20여 년간 RPF의 1인자로 행정수반 역할을 해왔으며, 르완다 헌법상 대통령 3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아직 후계 구도가 뚜렷하지 않아 2017년 대선 이후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르완다 의회는 RPF, 사회민주당, 자유당의 3개 정당이 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나, RPF 외의 두 정당은 의석 수가 미미한 데다가 RPF와 연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야당 세력이 없는 상황임. RPF는 2013년 9월 치러진 총선에서도 76%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어 안정적 국정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언론의 자유 억제, 정당 등록 억압 등 정치 민주화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종족 간 갈등 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으로 국민통합 이룩

- 1994년 대학살로 인구의 약 10%가 살해되었으나 학살 가담 정도에 따라 유엔안보리의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14년말 종결 예정), 자국의 사법제도 및 전통 재판제도를 통한 처벌 및 화해가 이루어짐. 또 국가통합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단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재는 특별한 종족 간 갈등양상 없이 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 대학살 이후 신분증에 자신의 종족을 명시하게 되어있던 제도를 없애고 대외적으로 자신의 종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 평화교육, 트라

우마 카운슬링, 분쟁 완화 및 해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통해 차별 방지 및 분열적·대학살적 이데올로기를 금지하고 있음.

□ 후투족 우월주의 무장세력의 반군 활동으로 인한 치안 불안

- 르완다 국내에서는 종족 간 화합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후투족 우월주의 무장집단인 르완다해방민주세력(FDLR)이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국경지역에서 반군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 및 치안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2012년 일련의 수류탄 공격을 가한 혐의로 22명이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FDLR과 연계된 것으로 여겨짐. 또 2013년 9월 16일 총선을 앞두고 13, 14일 이틀에 걸쳐 키갈리 교외지역에서 수류탄 테러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음.

□ 열악한 생활환경

-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 수준이 최빈국에 해당하며, 2012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서 총 187개국 중 167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보건 및 의료 시설 부족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56세에 불과하고,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91명에 이룸.
- 인구의 약 69%가 종합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 상태에 있으며 약 63%가 극빈선(PPP, 1일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서방 원조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최근 경색

- 르완다는 1994년 이후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서방 원조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재정수입의 1/3~1/2을 대외 원조로 충당해왔음.

- 그러나 2012년 6월 발간된 유엔 전문가집단의 보고서에서 르완다 정부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군인 M23을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하면서 다수의 원조국이 지원을 축소 또는 보류한 상황임.
- 투치족으로 구성된 M23은 투치족 정권인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르완다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이 후투족 반군인 FDLR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함. 유엔은 르완다 정부가 FDLR과의 대리전 성격으로 M23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미국은 2013년 10월 르완다가 소년병을 동원하는 M23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동국에 대해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동아프리카공동체를 통한 역내 협력 추진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는 2005년에 관세동맹을 발효하고 2010년에는 공동시장을 형성하며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1967년 결성된 EAC는 각국의 주도권 다툼으로 1977년에 해체되었으나, 2000년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를 주축으로 재결성되었음. 2007년 7월에 르완다와 부룬디가 가입하여 현재는 총 5개국으로 구성됨.
- 궁극적인 정치·경제 동맹체 구축을 목표로 2011년 1월 단일 통화 도입을 위한 공식기구를 발족하였으나 지역통합 추구에 따른 각국의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반발에 대한 우려로 정책의 추진 속도가 다소 늦어지다가 2013년 7월, 2024년까지 단일 통화를 도입하겠다는 데 합의함.
- EAC는 2008년 8월 아프리카 내 지역공동체인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과도 무관세, 무쿼터제를 골자로 하는 단일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 동 FTA가 창설될 경우 아프리카연합(AU)의 회원국 절반이 참가하는 인구 5억 명, 통합 GDP 6,240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현은 불투명한 상황임.

- 2013년 8월 르완다, 케냐, 우간다 3개국은 201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단일 관광비자 도입에 합의하였음. 또 단일세관 도입에도 합의한 바, 제도 시행 시 내륙국인 르완다의 관광 및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2005년 HIPC Initiative¹⁾ 완료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함에 따라 파리클럽은 르완다의 공적채무 59백만 달러를 탕감하고, World Bank도 HIPC 및 MDRI²⁾에 따라 르완다에 대해 총 18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하였음.

□ IMF 및 세계은행 연체현황: 없음 (2013년 3월 말 기준)

□ OECD 회원국 ECA의 대 르완다 지원현황(OECD, 2013년 3월 말 기준)

- 단기: 총 지원잔액 300만 달러(연체금액 없음)
- 중장기: 총 지원잔액 7,430만 달러(연체금액: 40만 달러)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13년 6월 개최된 CRE(국가위험평가 전문가)회의에서 르완다에 대해 대외원조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원조공여국 중 일부가 원조를 중단하고 있어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르완다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1) 고채무저소득국 채무구제(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Initiative)는 저소득국의 과중한 외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적 채무완화 방식(세계은행, IMF의 양허성차관과 파리클럽에 의한 리스케줄링)보다 외채경감 폭이 확대됨(67%→ 80%).

2) 다자국제금융기구 채무구제(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는 세계은행의 IDA와 IMF, AfDB, IADB 등 4개의 기구가 HIPC Initiative상의 완료점에 도달한 국가에게 채무잔액을 전액 탕감해주는 채무구제의 최종단계임.

종전과 같이 최하등급인 7등급으로 유지하였음.

- S&P와 Fitch는 르완다의 낮은 소득수준,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의 약점과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 운영으로 자본유입이 계속되고 2005년 채무탕감 이후 공적채무와 대외채무가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강점을 반영하여 르완다의 국가신용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3. 6.)	7등급 (2012. 10.)
S&P	B (2013. 3.)	B (2011. 12.)
Fitch	B (2013. 8.)	B (2012. 8.)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3. 3. 21 (북한과는 1972. 4. 22)

□ 교역규모

- 우리나라와 르완다 간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1,092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호식품과 반도체 등임.

□ 해외직접투자(2013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건, 545천 달러

<표 4> 한 · 르완다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9	주요품목
수 출	10,763	3,352	10,395	합성수지, 계면활성제, 기타석유화학제품
수 입	641	493	535	동제품, 기호식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르완다는 1994년 종족 갈등으로 인구의 10%가 살해되는 대학살을 겪었으나, 이를 계기로 소수종족인 투치족 중심의 RPF가 집권한 후 학살 가담자에 대한 처벌 및 화해가 이루어지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면서 종족간 화합을 상당 부분 이룬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과 민간부문 투자환경 개선 노력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고 농업·서비스업 부문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8%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수준이 아직 매우 낮으며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대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반군 지원혐의로 원조가 상당 부분 삭감된 점이 우려됨.
- 2010년 재선에서 압승한 카가메 대통령과 RPF는 의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호한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2017년 대선 까지 정치적 안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 투자 증대에 따라 총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외채 비중과 D.S.R 등 관련 지표가 양호하고, 2013년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대외신인도 개선과 FDI 유입 증가세를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조사역 이주은(☎02-3779-5727)

E-mail : june@koreaexim.go.kr